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14~15)

### 1.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관련<sup>1)</sup>

#### □ [동향]

- 한국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(滝崎)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5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,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
-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며,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서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고 거듭 촉구<sup>2)</sup>
-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협의 종료 후 외무성 간부는 “이번 협의는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,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”라고 평가하였으며, 다른 간부는 “협이는 여전히 진행중이며, 외교 당국자간 의사소통은 지속하고 싶다”고 발언

### 2. 불화수소 수출 관련

#### □ [일본 기업 동향]<sup>3)</sup>

- 불화수소 주요 제조업체인 쇼와덴코(昭和電工)의 다케우치(竹内) CFO는 15일 “연내에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”고 발언

---

1) 「日韓の外務省局長協議 「徴用」問題 韓国側に改めて是正求める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15).  
2) 「日韓の外務省局長協議 「徴用」問題 進展はなし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15). 및 「アジア大洋州局長、日韓協定で「賢明な対応」求める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 (2019. 11. 15).  
3) 「昭和電工「年内に韓国出荷見通し」。」 『日経産業新聞』 (2019. 11. 15).

- 재무성 '무역통계'에 의하면, 일본의 대한국 불화수소 수출량은 100킬로그램 (9월 기준)으로, 전년동월의 3,283톤에서 급격하게 감소
- \* 9월 경제산업성이 허가한 불화수소는 모두 기체형이며, 액체형 불화수소는 아직까지 수출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.